

[국토부 업무보고]수도권 서부 GTX-D 검토...내년 상반기 계획안 수립

등록 2020.02.27 11:47:48



【세종=뉴스시스】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. 2019.09.03. ppkjm@newsis.com

[서울=뉴스시스] 강세훈 기자 = 정부가 수도권 서부권 GTX-D(광역급행철도)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계획안을 수립할 방침이다.

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.

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서부권 GTX-D 노선 도입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제4차 광역국가철도망계획안 수립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.

국토부 관계자는 "제4차 광역국가철도망계획안 수립이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라 이를 감안해 구체적으로 서부권 GTX 도입을 논의할 것"이라며 "서부권 급행철도 검토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

또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현재 GTX-A노선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GTX-B노선은 지난 1월 기본계획에 착수했다.

C노선은 오는 11월 민자시설사업기본계획(RFP) 고시를 거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, 신안산선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정부는 또 400km/h 초고속열차 도입에 착수했다.

정부는 우선적으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송~평택 간 2복선 고속철도 사업에 도입할 예정이다. 이외 다른 구간

은 오는 10월께 고속철도 2복선화 구간의 기본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국토부는 또 서울역과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에 다음 달 착수해 철도망 연계교통 이용편의 제고에 나선다.

국토부 관계자는 "서울역·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 착수를 통해 고속철도·GTX·도시철도·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서울 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국토부 박선호 1차관은 "광역급행철도(GTX),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해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"고 밝혔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kangse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